

특집

□ OPEC 原油價格
인하 이후 □

OPEC는 과연 진정한 카르텔인가

지난 20여년동안 OPEC(石油輸出國機構) 국가들이 정치적 변화를 겪어오면서 몇차례 石油공급중단 사태가 빚어져 그때마다 石油의 정치무기화를 지탄하는 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石油産業은 마침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좌우되는 환경이 도래한 것 같다.

지난 60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등 5개 産油國이 바그다드에서 모여 창립한 OPEC는 당시 석유지배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국제석유메이저들이 원유가격을 인하하는 등 산유국의 석유자원을 멋대로 주무르는데 대항키 위해 조직됐다. 그후 카타르, 인도네시아, UAE,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리비아, 가봉 등 8개국이 가입해 현재 1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카르텔로 발족한 OPEC는 그후 10여년간 그 존재가 무시당하는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OPEC가 原油생산 공급 및 가격정책 등에 공동보조를 추구하는 국제 카르텔로서의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기는 지난 73년 10월의 제 4차 中東戰爭이후 부터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OPEC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식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어떠한 카르텔도 10년이 지나면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생산량의 40% 이상을 감축해야 될 상황에 이르면 해체되기 마련이라고 한다. 최근 OPEC회의가 가격지지라는 카르텔 본래의 목적보다는 OPEC자체의 붕괴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카르텔의 목적

그러나 OPEC 史를 자세히 살펴보면, OPEC가 카르텔에 가까웠던 때는 石油市場 통제에 황금기를 누리던 70년대보다는 오늘날이라 할 수 있다. 카르텔 형성의 본래의 목적은 말할 나위없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카르텔 관리자들은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를 대폭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공급량을 대폭 삭감시켜야 한다.

지난 73년 아랍산유국들이 카르텔힘을 이용하여 對美 석유금수조치를 취했을 때, 石油수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된 동기는 소비국들이 공급불안을 느낀 나머지 너도 나도 앞다투어 石油물량 확

보에 열을 올려 가수요를 창출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美国 Purdue대학의 Claudio Loderer 경제학 교수는 한 논문에서 『OPEC가 과연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OPEC는 매년 두차례의 정기총회를 갖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회의는 OPEC가 카르텔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제시는 못했다. 74-80년 기간에는 OPEC의 가격결정이 시장가격에 바로 연결되는 시기로 동기기간에는 OPEC가 석유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개개 회원국들에 통제자 역할은 못하여 카르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生存전략 추구

그러나 81-83년에는 OPEC의 결정이 시장가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74-80년 기간과는 달리 81-83년의 OPEC 총회는 생산량 조절문제가 논쟁점이 되었다. 상황이 70년대와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81년에 접어들면서 OPEC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선진공업국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石油수요가 떨어진 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세되었기 때문이다.

70년대는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에 시달리고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70년대의 인플레이의 주원인은 석유파동 때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소비국 정부들이 너무나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가격을 인상시킨 것이다. OPEC 산유국들은 美달러貨가 약세에 있게 되자 석유수입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인상을 단행하곤 했던 것이다. 80년대에 들어 인플레이가 진정됨에 따라 OPEC는 더 이상 가격인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70년대에 高인플레이가 OPEC로 하여금 油價인상의 커다란 명분을 주긴 했지만, 油價인상 요인에는 다른 요인들도 결부돼 있었다.

60년대에 中東에서 原油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서방석유회사들은 70년대에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OPEC의 石油자원의 국유화 조치가 속출되는 가

운데에서 그들의 황금기가 종말에 다가옴을 엄연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산유국으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서방 석유회사들이 국제석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石油를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생산하는 低油價 정책이 주정책이었으나, OPEC에게 석유자원 소유권이 이양됨에 따라 상황은 뒤바뀌었다. 즉 低生産·高油價 정책이 출현되었다.

진정한 카르텔로 행동할 때

제 1차 석유파동의 전후에 취한 美国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OPEC의 高油價 정책이 쉽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지난 59년 즉 OPEC가 설립되기 전 美国 정부는 국내 원유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中東 및 기타 지역으로 부터의 원유수입에 할당량을 부과했으나, 이것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油價가 인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통제정책을 취해 美国내의 석유유통 및 생산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결국 전보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OPEC 산유국들은 70년대에 각기 자국에 가장 이롭다고 느낀 산유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석유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었다. 진정한 카르텔은 카르텔 전체 이익을 위해 하나 또는 몇몇 회원들이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OPEC는 이 기간동안 산유량 쉐어링도 책정하지 않았고 가격에 대해서도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原油의 형태, 質, 시장에서의 인접성 등에 적용하는 유종간 가격차별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기존원유 가격만 형식적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81-83년에 들어서면서 原油價의 침체 내지 하락현상이 도래함에 따라 OPEC 산유국들은 油價안정 또는 카르텔 붕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량 조절에 역점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이 OPEC가 붕괴할 것이라는 70년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80년대는 국제석유환경이 바뀌어 OPEC는 진정한 카르텔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으며, 어려움은 인접한 회원국인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함으로써 가중되었다. 흔히 OPEC하면 아랍산유국들의 카르텔로 생

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나이지리아 같은 大 非아랍 산유국도 있다. 英國, 멕시코와 같은 非OPEC 산유국들은 OPEC산유국들이 일사분란하게 단결하지 못하는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國 및 서방 국가들이 인플레이에 직면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 石油收入을

방어하기 위해 OPEC는 또 다시 단결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中東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 석유유통과 생산이 상당한 장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

(Asian Wall Street Journal)

□ 海外石油市場 □

국제나프타市場의 최근 動向과 전망

세계 나프타 시세는 이례적으로 큰 변동없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 4개월간에 걸쳐 톤당 5달러 정도의 소폭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1년간의 가격동향은 예년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프타 가격은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싸고 여름철에 비싸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 난방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유처리량을 늘리면서 나프타 생산량이 자연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2월중순에 톤당 258달러를 바닥세로 4월 중순에 27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에는 240달러대를 밑돌아 2차 석유파동이후 最低價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石油가격 지표 시장중의 하나인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최대의 원인은 83년부터 84년에 걸쳐 美國과 日本을 강타한 기록적인 한파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原油 처리량을 늘렸기 때문에 美國에서 나프타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나프타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수급에 변화를 가져올 듯한 요인이 몇가지 나타났다. 우선 첫째는 금년에 한파가 덜친곳은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소련이라는 것이다. 소련이 한파를 이유로 原油와 석유제품의 對 서방수출을 중지하였다. 제네바에서 열린 OPEC 임시총회가 기준원유였던 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을 1달러 인하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 정보가 전해졌으며, 임시총회 결과를 기다려 구입을 고려했던 업자들이 일제히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인상에 부채질을 했다.

소련의 작년 原油생산은 하루 1천2백26만배럴로 전년보다 6만배럴 정도 밑돌았다. 소련의 이러한 생산감축은 2차대전 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월 13일에는 마리셰프 石油工業相이 경질되었다. 이때 한파가 엄습, 생산량과 파이프라인의 통유량이 모두 감소된 반면 내수는 크게 증가했다. 더 정

확한 감산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갖가지 정보가 나도는 가운데 北유럽 시장의 나프타 시세는 톤당 235달러(CIF)를 돌파, 가격정지전에 비해 15달러정도 올랐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NGL(天然가스液) 문제이다. 사우디의 PETROMIN은 작년 1월 16일 NGL의 공시가격을 1갤런당 1.5센트(1톤당 약 6달러)인상, 59.05센트(1톤 약236달러)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日本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작년말로 5년간의 계약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수입을 중지하였다. 日本측이 일찍부터 스파트가격 연동제를 요구해 왔으나, PETROMIN측은 반대로 공시가격을 계속 인상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NGL로 국한되지 않는다. 사우디가 메이저와 합작으로 건설한 수출용 정유공장으로 부터의 출하가격을 좌우할지도 모른다.

高附加價値化에 전력을 쏟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모빌社와 합작으로 동해안의 「안부」에, 그리고 셀社와 합작으로 페르시아만안의 알주베르에 하루 25만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춘 수출용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작년 가을부터 가동된 「안부」는 지리적으로 유럽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4월에 가동될 예정인 알주베르는 동남아 및 極東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량은 PETROMIN과 메이저가 각각 50%씩이다. 문제는 PETROMIN의 판매방법이다. PETROMIN은 공시가격으로의 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日本측은 「수급이 완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NGL에 대한 의견대립도 수출정유공장의 판매방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NGL은 페르시아만안 라스타누라에서 선적되지만, 현재는 선적중지 상태이다. 사우디는 잉여NGL을 原油에 혼합하거나 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알주베르의 가동은 2-3개월 늦어질 것이다」는 정보가 시장에서 나돌고 있다. *